



2014년 8월 30일 제5호 영월박물관협회 편집 간행

강원도 영월군 영월동로 1121-15 TEL: 033-372-6828 FAX: 033-372-6827 www.ywmuseum.com /yema2013@naver.com

■ 영월박물관협회- 8월 23일 주니어학예사양성과정 개강식

영월박물관협회(회장 오석환)는 강원도 영월교육지원청(교육장 장기하) 주최, 영월군(군수 박선규) 후원으로 2014년 지역특화교육과정 <영월박물관고을 주니어학예사양성과정 “박물관=역사+문화+예술=힐링(Healing)이다”> 개강식을 8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 영월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하였다. 이 날 개강식에는 장기하 교육장, 박선규 영월군수, 조정이 영월군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영박협(부회장 고명진) 등 참가 학생, 참여 기관장 및 운영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 사업은 박물관고을로 널리 알려진 영월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지역 문화사업과 연계한 향토 인재 육성을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양성과정은 올해 11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를 활용하여 운영한다. 영월 관내 중3, 고1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이론수업과 현장답사를 통해 영월지역에 기반을 둔 박물관의 역사와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고 학예사(Curator)의 역할과 업무를 통하여 직업 정보, 진로 탐색 등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의 역사·문화의식 고취 및 자긍심을 일깨우며, 더 나아가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여유와 긍정적인 마인드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 호야지리박물관 하우스 콘서트<One Day Festival> 한중일 동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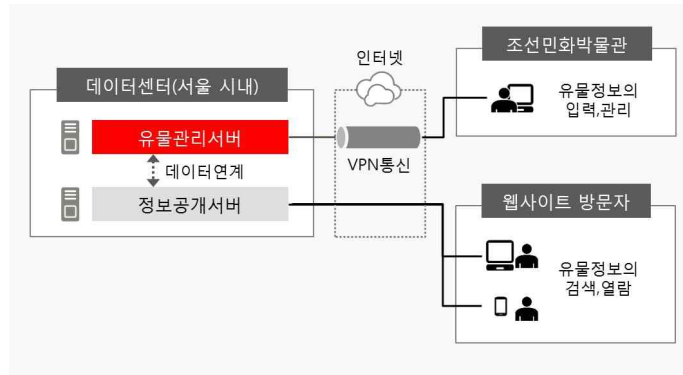
호야지리박물관(관장 양재룡)는 지난 7월 12일 오후 7시에 한·중·일 연합작전으로 펼쳐지는 One Day Festival <2014 뮤지엄 콘서트- 수주사랑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하우스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음악회는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박창수씨가 2002년 7월 12일 서울 서대문 자신의 집에서 시작한 국내 최초의 살롱 음악회이다. 객석과 무대가 하나가 되어 연주자와 관객들의 호흡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생생 연주회였다. 이번 <One Day Festival>는 더 하우스 콘서트(대표 박창수)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되었다. 클래식, 재즈, 뉴에이지, 민속음악 등 다양한 음악장르 공연이 한·중·일 3개국 100여개 지역에서 동시에 펼쳐져 이념과 갈등을 넘어 문화로 소통되는 날이었다.

호야지리박물관 경혜영 학예사는 “수주사랑 작은 음악회는 지역사회의 주민과 학생, 수주를 찾은 관광객 모두에게 수주의 초여름 밤의 아름다운 추억을 드리기 위해 이번 콘서트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연주를 위하여 김정수(Violin), 박재린(Violin), 박미애(Viola), 홍정희(Cello)로 구성된 코르다벨라 스트링 콰르텟(Chorda Bella String Quartet)은 미뉴에트(보케리니), 라 트라비아타(베르디), 헝가리춤곡 제5번(브람스), 현악4중주 제6번 F장조 작품번호 96 ‘아메리칸’(드보르자크)을 연주하여 많은 갈채를 받았다.



■ 조선민화박물관 <유물정보관리시스템 가동>

조선민화박물관(관장 오석환)은 일본 도쿄 후지쯔주식회사(사장 야마모토마사미), 한국후지쯔주식회사(사장 박제일)와 공동으로 박물관·미술관·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FUJITSU Solution Musetheque)뮤지테크를 활용하여 유물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지난 2014년 5월 28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뮤지테크 시스템은 조선민화박물관이 소장한 조선민화 약 4천여 점의 이미지와 관리정보, 관련 문서 등의 모든 정보관리를 시스템화해서 손쉽게 인터넷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다. 따라서 조선민화박물관은 유물정보의 관리를 대폭 효율화하였고 이용자는 조선민화박물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어디에서나 공개중인 유물정보를 관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관람객은 자신의 모바일 기기에서 전시물의 QR코드를 통해 조선민화박물관 홈페이지의 전시물 정보를 간편하게 볼 수 있다. 이 기능으로 민화작품의 상세정보를 보고 이해하면서 전시물을 감상할 수 있다.



■ 2014년 전국민화공모전 심사

2014년 8월 27일 조선민화박물관에서 전국민화공모전 심사가 열렸다. 심사위원장에 윤범모(가천대학교수)를 비롯하여 박대성(고암기념사업회 이사), 신동식(한국민화협회장), 정하정(한국민화협회 부회장), 송창수(홍익대 미술디자인교육원 민화지도교수), 윤명섭(민수회원) 등이 참가하여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2000년도부터 시작된 공모전은 앞으로 민화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제시와 전통 문화 계승발전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대상 등 본상과 장려상 등 수상자는 오는 10월 11일(토) 오후 1시 김삿갓계곡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7회 난고 김삿갓문화 행사장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 2014년 김삿갓문화제 전국초등학생 민화공모전

미래의 꿈나무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과 우수성을 일깨우고, 전통민화의 계승 발전과 대중화를 위하여 민화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기간은 9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이며 공모 작품은 민화를 주제로 하여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민화홈페이지([www.minhwa.co.kr](http://www.minhwa.co.kr))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 목산미술박물관 - 한국수묵화교실 개강

목산미술박물관(관장 임상빈)은 지난 8월 12일 저녁 7시에 농어촌희망재단과 함께하는 ‘한국수묵화교실’ 개강식이 있었다. 참가 교육생은 인근 지역주민 20여 명으로 몇해 전부터 무료수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수묵화교실’은 농어촌희망재단에서 공모한 작은시설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채택되어 동아리 형태로 운영되며 주민 친목과 행복을 꿈꾸는 행복발전소 역할을 담당한다. 지속적인 수묵화교실 운영으로 쌓아온 실력을 바탕으로 12월에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 2014년 하반기 꿈다락 토요문화교실 박물관 연계프로그램 선정

2014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박물관 연계프로그램 하반기 지원관에 영월박물관고을에서 세계민속악기박물관(관장 이영진),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관장 고명진), 인도미술박물관(관장 박여송)이 선정되었다. 앞서 2014년 상반기 꿈다락 토요문화교실을 운영한 바 있다. 꿈다락 토요문화교실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박물관협회 주관하는 프로그램이다.

박물관	토요문화교실 프로그램
세계민속악기박물관	지구촌 악기탐험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	가족사랑 소통 신문만들기
인도미술박물관	토요일엔 움~직~여~요.

■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 - '각(刻) 세우는 박물관' 개강

지난 7월 7일 영월군 한반도면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관장 고명진) 학습관에서 농어촌희망재단과 함께하는 '각(刻) 세우는 박물관' 개강식이 20여명의 참가교육생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각 세우는 박물관'은 농어촌희망재단에서 공모한 작은시설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이 주관하며 한국각자협회 영월군지회(회장 김철산)의 지도로 5개월간 진행된다. 작으니설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재원으로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이 주최하는 문화사업이다.

■ '2014년 만해대상' 문예부문 수상자 <아시라프 달리>, 이란 영화감독 <모흐센 마흐말바프> '서강의 별이 빛나는 밤에' 참여

<2014년 만해대상> 수상자 아시라프 달리(이집트 작가 겸 언론인)와 모흐센 마흐말바프(이란 영화감독)은 지난 8월 12일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에서 열린 <서강의 별이 빛나는 밤에> 행사에 참여했다. 수상자 아시라프 달리는 현재 '알 아라비' 매거진 편집장 겸 '아시아 엔' 아랍어판 편집국장 등을 맡고 있으며 "박물관고을 영월이 세계에 우뚝 서기를 바라며, 2018년 평창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미디어기자박물관에서 취재 현장에서 순직한 아시아기자들의 추모비를 건립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마흐말바프 감독은 풍등(風燈)에 'LOVE'라고 적은 뒤 "영월군민과 인류 모두가 행복과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뒤 참가자들과 함께 밤하늘에 띄워 소원 성취를 기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선규(영월군수), 조정이(군의회 의장), 오석환(영월박물관 협회장), 우홍명(광전2리 이장), 김영자(부녀회장), 김영식(농악대장) 등과 함께 러시아·폴란드·몽골·알제리 등 한국에 유학 온 대학생이자 주니어아시아기자협회 인터넷기자 7명도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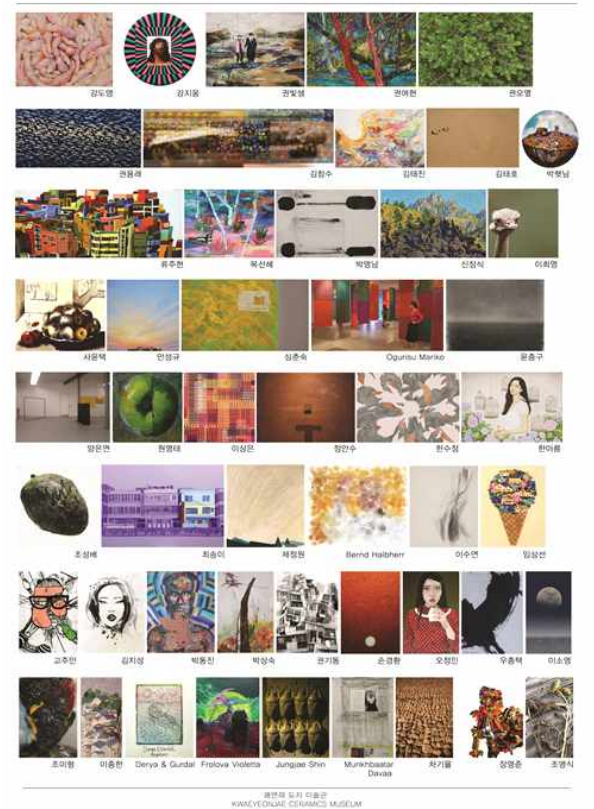


■ 영월군민, 근로자가 함께하는 <영월, 별이 빛나는 밤에>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은 지난 8월 27일 영월농공단지 재생사업으로 마련된 찾아가는 문화공연 <영월, 별이 빛나는 밤에>가 근로자와 영월군민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에는 한반도색소폰동호회와 영월지역아동센터 김다운(영월초3), 윤서진(옥동초3)의 오카리나 연주, 전용훈(영월사랑사진신문 총무) 부부의 노래와 김홍식(모운동 이장) 강원도 이야기에 이어 사회자 홍성순(영월군 문화관광해설사)의 시낭송 시간이 이어졌다. 문화공연을 마친후 열다섯번째 뱃말이야기 마을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감상시간을 가졌으며 영월ENS(대표 신유근)에서 준비한 만찬으로 <영월, 별이 빛나는 밤에> 행사가 막을 내렸다. 문화재생사업은 영월군과 영월박물관협회 주최로 계속 열릴 예정이다.

■ 쾌연재도자미술관 초대전 <GLOBAL DRAWING INTERFACE ARCHIVE>

쾌연재도자미술관(관장 정연택)은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Global Drawing Interface Archive> 을 주제로 초대전을 개최한다. 전시 작가는 조명식(국민대교수)를 비롯하여 대학원생 등 50여 명이 참가하였다. 29일 오후 5시 개막식에는 박선규(영월군수), 오석환(영월박물관협회장), 조명행(아프리카미술박물관장) 등과 함께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 ■ 영월곤충박물관 소개

영월곤충박물관은 사람들에게 자연 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2002년 5월 5일 어린이날 개관하였다. 영월곤충박물관에는 약 3천여 점의 곤충표본과 함께 곤충화석, 곤충우표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약 30여종 이상의 살아있는 곤충들도 상시 전시되어 있어 곤충들이 살아가는 생생한 모습을 관찰하며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영월곤충박물관은 부설연구소인 (사)곤충자연생태연구센터와 (사)천연기념물곤충연구소가 있어 장수하늘소, 붉은점모시나비, 물장군 등의 사라져가는 우리나라 곤충들을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세계최초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장수하늘소의 인공증식을 성공한 바 있다.

## ■ 영월곤충박물관, 오대산국립공원에서 장수하늘소 야생적응실험 성공

영월곤충박물관은 국립생물자원관, 원주지방환경청과 함께 지난해 오대산국립공원에서 장수하늘소(천연기념물 218호, 멸종위기 1급) 야생적응 실험을 착수하였으며, 실험 착수 10개월만인 2014년 8월 1일, 오대산국립공원 야생적응실험 케이지에 이식되었던 유충이 암컷 성충으로 우화해 나오으로써 1차 실험이 대성공을 거두었다.



2014년 8월, 오대산국립공원에서 우화한 장수하늘소 암컷

영월곤충박물관 이대암 관장은 장수하늘소를 2012년 세계최초로 인공증식에 성공하였으며 이 기술을 바탕으로 특허청으로부터 <장수하늘소의 대량증식을 위한 인공사료 및 이를 이용한 사육방법>으로 발명특허(제10-1222469호)를 획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대암 관장은 향후 20년간 국내 및 해외에서도 장수하늘소 인공증식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부여받게 되었다.

장수하늘소의 인공증식은 일본과 러시아에서도 이미 시도한 바 있지만 아직 성공하지는 못한 상태이다. 이처럼 장수하늘소의 인공증식은 학계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곤충박물관 이대암 관장의 연구를 통해 그 동안 베일에 가려있던 장수하늘소의 생활환을 완벽하게 규명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야생적응실험 성공을 통해 장수하늘소의 자연복원 직전 단계로까지 빠른 속도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장수하늘소는 자연 상태로 알에서 성충이 되기까지 무려 5~7년 정도나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영월곤충박물관에서는 3년 9개월 만에 암수 한 쌍을 우화시킴으로써 인공증식에 성공하였다. 장수하늘소는 지난 1970년대까지만 해도 경기도 광릉숲에 상당수 서식했으나 그 후로 개체수가 매우 급격히 줄어들어 2006년 암컷 한 개체가 20년 만에 출현하였고 8년 후인 2014년 수컷 한 개체가 발견되었다. 이는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절멸에 가까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 관장은 “모든 국민이 살아 있는 장수하늘소를 영월곤충박물관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고 평창 오대산국립공원 내에 복원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연구 목표이자 꿈”이라고 밝혔다.

## ■ 2014년 동강축제 - 백문이불여일견(百聞而不如一見) 박물관 체험

2014년 동강축제기간(7월29일~ 8월2일)에 영월박물관협회는 박물관체험관을 운영하여 많은 관람객들로 성황을 이루었다. 행사는 박물관체험으로 나만의 보석함 만들기(조선민화박물관), 키넥아트(국제현대미술관), 원목동물·곤충만들기(목산미술박물관), 독도지도만들기(호야지리박물관), 화석발굴체험(영월화석박물관), 다식만들기(호안다구박물관), 감자군·고구마양 메모꽃이(쾌연재도자미술관), 오카리나만들기(세계민속악기박물관), 아프리카나라팔찌·사파리모자(영월아프리카미술박물관), 인도문양컵받침·목걸이(인도미술박물관), 박쥐에코백(영월동굴생태관)을 운영하였다. 전시로는 보도자료전(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 영화 상영, 아트샵, 커피숍 등을 운영하였으며 수익금은 영월장학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 ■ 2014년 동강축제 - 박물관 팸투어

팸투어는 동강축제 기간 동안 박물관고을 영월 알리기를 위하여 운영되었다. 팸투어는 관광객들에게 축제와 자연, 박물관이 연계된 색다른 체험 기회 제공으로 박물관고을 영월을 널리 알리는 데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 운영은 사전 신청을 받아 축제기간 4일 동안 하루에 80명씩 총 240명이 투어하였다. 코스는 관광객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해 각 날짜별로 다르게 구성하여 선암마을 한반도지형 뗏목체험을 기본으로 인도미술박물관, 호야지리박물관, 미디어기자박물관, 세계민속악기박물관, 곤충박물관 등 5개관 가운데 3개관씩 선택하여 진행되었다.